

해외출장 결과보고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FAO가 주관하는 Workshop 참석하여 2008년의 국제 쌀가격 급등 요인과 대책을 논의, 향후 수급 및 가격불안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논의
2. 출장 기간: 2009. 2. 8~13일 (5박 6일)
3. 출장 지역: 태국 치앙마이
4. 참석자: FAO 로마 및 아태지역 담당자(David Dawe, Alexander Sarris, He Changchui, Tom Slayton, Peter Timmer, Juejan Tangtermthong), 아시아 국가별 정책담당자 및 쌀 전문가(일본 규슈대학 Shoich Ito, 인도 IFPRI Monica Dutta, 베트남 농업부 국장 Pham Hoang Ngan) 등 25명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우리나라 쌀산업 실정에 맞는 논의 내용은 없지만 국제적 관심사항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인디카쌀 교역 및 가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생산성 증대로 인해 수요량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의 장립종 국제 쌀가격이 톤당 400달러 미만 수준에서 5월에는 12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급변화 등 시장요인보다는 인재(man-made)로 규정함
 - 인도와 베트남(각각 세계 2, 3위 쌀 수출국)이 캄보디아, 이집트 등의 국가에 이어 쌀 수출을 금지하였음. 인도는 선거를 앞두고 가격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 유가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
 - 달러 가치 하락
 - 필리핀 등 몇 국가의 잘못된 쌀정책 결정(필리핀 정부는 외식업체의 쌀 요리 공급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불안감으로 높은 가격으로 쌀수입 추진. 특히 법무장관이 쌀 거래 등 범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발표는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
 - 쌀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최근에 장립종 국제 쌀가격이 톤당 4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대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이는 작년의 쌀가격 급등이 수급불안이라기 보다는 수급관리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불안감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앞으로도 작년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비축이나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일본의 Ito 교수, FAO의 Sarris)
 -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물량이나 품질이 다르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주류를 이루었음. 국가별로 필요한 수준의 비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장립종 쌀가격은 거의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중단립종 쌀가격은 왜 톤당 1200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출장자의 큰 관심거리였음
 - "Centre for Global Development"의 Visiting Fellow인 Tom Slayton은 국제 중단립종 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출장자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함
 - 이집트 중립종 수출량이 100만 톤으로 큰데 수출 금지조치를 내려 공급량이 줄어들었음(이집트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는지 등 수출 금지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음)
 - 호주의 쌀 수출량이 연간 60만톤 수준에서 2007년에는 4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에는 오히려 국내 소비를 위한 수입이 이루어졌음
 - ※ 일본의 Ito 교수는 2008년 일본 MMA 수입량이 계획량 76만 7천 톤에 크게 미달한 37만 톤으로 올해 2008년 잔량을 포함한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쌀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하지만 출장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일본의 2008년의 수입 잔량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고로 이월되었고 올해 수입량도 이미 예정되어 있음. 즉 추가수입이 없으므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하지만 우리나라도 쌀수입이 계획보다 1년 시차를 두고 있는데 일본의 수입량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함
 - ※ 향후 중단립종 국제 쌀가격은 4월 이후 이집트 정부가 쌀수출 금지조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됨

<기타 특이 사항>

- 태국은 쌀가격이 연중 안정되도록 벼 담보 용자제도(Paddy pledgi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유통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수확기에 농가에 용자금을 지원, 농가는 수확한 벼를 본인 소유의 창고나 도정업체의 창고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 판매하여 용자금을 상환함
 - 시장가격이 용자금 수준에 미달하면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대신에 담보한 벼 상환권을 상실함
 - 그리고 농가는 추가적으로 목표가격과 용자가격 차이를 보조받음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수확기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단경기 가격 상승 폭은 크게 줄어들어 연중 가격등락 폭은 크게 줄어듦
 -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큰 편임: 용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 창고 보관비용 보조, 용자가격과 목표가격 차이의 보조 지원

<Chronology of 2008 Japonica Rice Price Hike>

Jan. 19, Egypt's exporters suspend exports.

Feb 12, Egypt's export ban lifted.

Mar 8, Egypt hikes export duty by 50% to just under \$55/ton.

Mar 27, Egypt bans exports until October 1.

April 22, Japan scraps import tender in which it reportedly was offered 100%B at \$1,300/ton fearing that ToKyo would be blamed for pushing world prices higher.

June 9, Egypt extends export ban until April 2009.